

광주 임대주택 관리 '구멍'... "3천명 대기중인데 불법거주라니"

기준 초과 고가차 13대...14가구 중 1가구 차량 2대 소유

장재성의원 "매년 불법 거주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을"

광주시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광주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

아야 하는 분들이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한 입주 조건만 충족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아파트이다.

장 의원이 광주시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도시공사 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3대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도교통부에서 공시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은 소득, 자산, 자동차로 각각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은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주택은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이고 공공임대 주택은 2799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광주시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차량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 임대주택 14가구 중 1가구(846세대)가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6월) 임대주택 불법거주 적발건수는 153

건이다. 2017년 36명, 2018년 48명, 2019년 49명, 올 6월 현재 20명이다.

이중 44.4%인 68건은 퇴거조치가 완료 됐으며 나머지 85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시 임대주택의 입주 희망대기자는 총 3140명으로 평균 11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입주 가능하다.

장 의원은 "광주시도시공사가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고가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가

차량에 대한 엄격한 등록제한을 시작으로 임대주택 입주인 입주자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불법거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의 관리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며 "도시공사 거주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통해 불법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선욱기자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 순례단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 순례단이 21일 경기 여주시 강천면 남한강 일대를 불교총흥과 국난극복을 기원하며 지나가고 있다.

광주 '싱크홀' 전국 최다... "4년새 3.6배 증가"

장재성의원 "방지대책 요구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아"

광주시의 싱크홀 발생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광주시 기반침하 발생에 관해 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4년 사이 360%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싱크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에 면적 1㎡ 이상이거나 깊이 1m 이상의 기반침하 현상을 뜻한다.

지난 8월 7일 국군통합병원 옛터 옆 광송간 도로, 지난 8월 26일 풍암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싱크홀 관련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싱크홀 발생현황은 2017년 13건에서 2020년 8월 현재 44건으로 4년 사이 360% 늘어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8월 말 기준 올해 전국



21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행정당국은 도로를 통제 한 뒤 복구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싱크홀 발생은 221건이며, 시도별로 광주시가 가장 많이 발생지역은 광주시로 44건이었고, 경기도 34건, 충북 24건, 서울 23건, 강원도 22건, 대전 18건, 경북 12건 순으로 이어졌다.

장 의원은 "지난 2018년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싱크홀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빈번하게 증가 한 것은 광주시의 싱크홀에 관하여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싱크홀 사고와 같은 재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재해대비가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광주시의 재해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민간시설물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공항 검색 실패' 5년간 17건...실탄·칼이 기내까지

5년간 실탄 2·공포탄 1·칼 7·총격기 1건

최근 5년간 공항 보안검색 적발 실패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항 안전의 최전선인 보안검색이 풀리게 되면 테러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안전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보안검색에 실패해 기내까지 승객이 가져간 품목으로는 실탄과 공포탄, 칼, 전기 충격기 등으로 다양하

다.

21일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항 보안검색 실패에 따른 위험 물품의 기내 반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건의 위험물품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별로는 청주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4건, 김포 3건, 울산과 대구, 제주공항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5년 1건이던 적발건

수는 ▲16년 7건 ▲18년 2건 ▲19년 4건 ▲올해에도 3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위험물품으로는 ▲실탄 2건 ▲공포탄 1건 ▲칼 7건 ▲전자 충격기 1건 등이 적발됐으며, 이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으로 탑승한 사례가 2건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출입한 사례가 1건 발생했다.

특히 국가관문인 인천공항의 경우 15년 1건, 16년 2건, 19년 1건 모두 승객이 칼을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